

# 여수, ‘국보 진남관’ 중수 상량식 거행

보수 축원·안전 준공 기원 고유제  
상량문 봉안·국악단 공연 등 진행  
마무리 공사 후 내년 하반기 공개

여수시가 최근 ‘국보 여수 진남관’ 중수 상량식을 열었다.

이날 상량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김영규 시의회 의장, 문화재청 이경훈 차장을 비롯한 관련 단체,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여수시립국악단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여수향교 김세규 전교 주재로 진남관의 보수를 축원하고 안전한 준공을 기원하는 고유제 봉행과 상량문을 마룻대에 봉안하는 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상량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인



정기명 여수시장의 상량문을 들보에 봉안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신병은 시인이 작성, 한국서예협회 박정명 초대 작가가 휘호했으며, 우리 민족의 정신과 진남관

에 대한 자부심, 긍지를 담았다. 시는 지난 2017년 가설덧집 설치와 진남관

해체로 진남관 보수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했으며, 발굴조사, 초석·기둥·목부재의 조사 및 조립 등은 문화재청 기술지도단 자문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지붕기와 및 단청 마무리 공사 등을 거쳐 2024년 말에는 진남관을 공개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우리 문화유산을 바로 알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고증·연구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됐다”며 “남은 공사도 우리 시민의 자긍심이자 역사를 지켜나간다는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로 중지됐던 진남관 보수현장 공개관람이 오는 4월부터 재개돼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전과 오후 각 1회씩 진행된다.

첫 관람은 4월 8일로 오는 25일부터 여수시 홈페이지 내 OK통합예약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있다.

/여수=곽재영 기자



## 송월동행정복지센터-농관원 주민편의 담장 정비사업 완료

나주시 송월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귀남)가 최근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나주시사무소(소장 박중희)와의 사이에 주민 편의를 위한 통행로를 만들고 양 기관 관계자들과 관내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식을 열었다.

앞서, 송월동에서는 양 행정기관을 오가는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농관원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장 일부를 허물고 통행로를 새로 개설하는 담장 정비사업 추진했다.

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 공익직불금 신청 등 농업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양 기관을 번갈아 방문하는 주민들은 기관 간 담장으로 인해 동선이 길어지는 데 대한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협의를 해왔으며, 송월동은 나주시에서 읍면동에 교부한 ‘소규모 민원처리사업’ 예산을 들여 해당 사업을 진행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 보성, 해양수산 심의 수산조정위 내년 예산 45건 1,373억원 신청

보성군은 최근 2023년·2024년도 해양수산사업 심의를 위한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2024년도 보성군 해양수산사업 예산 신청 금액은 국·도비를 포함한 25종 45건 1,373억여 원 규모이다. 이는 전년도 심의 의결 사업비 319억보다 1.054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위원회는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과 군에서 추진 예정인 사업의 타당성 여부, 해양수산사업 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 어장·면허양식장 이용 개발계획 등을 심의했다.

2023년도 사업으로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18종 28억여 원의 사업을 확정했다. 또한, 2023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160건 773ha), 2023~2024년 어장·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22건 243ha) 등을 검토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예산안을 오는 27일까지 전남도를 경유해 중앙부처에 발송, 중앙부처에서 최종 예산을 배정하면 사업 대상자를 확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보성=백종두 기자

## 광양, 장청강 중국 총영사 일행 방문

### 동반 성장 교류 활성화 기대

광양시와 중국 간 교류가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광양시는 장청강 주광주 중국 총영사 일행이 최근 광양지역과 중국 간 교류 증진을 위해 시를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청강 총영사는 지난 13일 정인화 광양시장을 예방하고, 14일 오후 매화축제가 한창인 광양매화축제장을 방문하는 등 짧은 일정을 소화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장청강 총영사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광양시는 중국의 8개 도시와 활발하게 교류해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기업의

광양지역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중 양국의 소중한 우정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장청강 주광주 중국 총영사는 “지나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로 양국 지방 도시 간 교류도 30년을 넘었다”며 “최근에는 중국기업이 광양만 지역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선진지역에서 좋은 경험도 배우고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 현지와 동반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3월 말 주한 중국 대사로 곧 광양시를 방문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광양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자주 찾아오겠다”고 덧붙였다.

/우성진 기자



장청강 주광주 중국 총영사 일행이 최근 정인화 광양시장을 예방했다.

/광양시 제공

## “창의적 관광사업·다채로운 마케팅 시도”

### 강진문화관광재단 임시이사회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 최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2022년도 운영성과 및 결산보고,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 운영 규정 일부 개정, 2022년도 이월금 2023년도 추가예산 편성 승인 등이 다뤄졌으며, 기타 현안 관련

토의가 이어졌다.

이사회 시작에 앞서 진행된 이·감사 위촉식에서는 강광목 강진청자디자인연구소 대표, 이범우 한국외식업중앙회전남도지회 강진군지부장, 홍여신 전 강진푸소협동조합 사무국장, 강신겸 전남대 교수, 김정식 전 강진군 기획홍보실장이 이사로 신규 위촉됐고, 박평오 법무사, 김홍은 천지인세무회계 대표가 감사로 신규 위촉됐다.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 문제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강진에서 1주일 살기’는 강진에서 푸소와 관광을 연계한 관광상품의 일환으로,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403팀 1,047명이 강진에서 머물고 가는 등 지역에 많은 수익 창출을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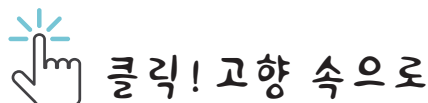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시대와 인물 재현을 통한 사의재 관광 명소화 사업 ‘조만간 프로젝트’는 2022년 총 41회에 걸쳐 사의재 관광객이 3만3,150명이 들며, 2021년 대비 약 38%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재단은 전남음악창작소에서 운영 중

인 지역 문화 예술 및 우수 뮤지션 발굴, 강진을 관광상권 환경개선 및 특화상품 개발, 마케팅 등 강진을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관광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강진원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강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관광 자원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군문화관광재단의 역할”이라며 “관광객 500만 명 유치로 관광 강진 만들기 꿈을 현실로 이뤄낼 수 있도록 창의적인 관광사업과 다채로운 마케팅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한태선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 광양백운라이온스클럽, 취약계층 지붕 수리

광양백운라이온스클럽이 최근 광양읍 인사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가구를 찾아 지붕 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집수리 대상으로 선정된 A씨(79)는 출입구 처마 지붕이 부식돼 비가 오면 누수가 돼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었으나 어려운 형편에 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광양읍 맞춤형복지팀에서 현장 발굴을 통해 지붕 누수 보수를 위한 후원을 연계해 광양백운라이온스클럽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식된 처마 지붕을 보강했다. 또한 집주변, 마당 잡풀과 쓰레기 등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했다.

/우성진 기자



## 강진 칠량농공단지협, 성금 전달

강진군 칠량농공단지협의회(회장 나생석)가 최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칠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칠량농공단지협의회 나생석 회장은 “이런 이웃돕기 성금 기탁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협의체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 배우 정보석, 나주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나주시는 지역 출신 배우 정보석 씨가 고향사랑기부 릴레이에 동참했다고 16일 밝혔다.

나주 남남면 출신인 정보석 배우는 1986년 KBS 6·25특집극 ‘백마고지’로 데뷔한 후 젊은 느티나무, 사모곡(1987)에서 연달아 주연을 맡으며 청춘스타로 이름을 알렸다.

정 씨는 “최근 하늘나라로 보내드

린 어머니를 생각하며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생겼다”며 “마침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 나주에 대한 애정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부 릴레이에 동참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나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홍보대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고향 발전을 응원하기도 했다.

/나주=조충권 기자